



장수교육지원청, 개념 기반 탐구수업 이해·적용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교육지원청(추영곤 교육장)은 2025년 4월 23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장수초등학교에서 관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2025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이해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교실 현장에서 실천해 온 경력 점준초 관내교사 교사가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였다.

연수는 1차(4월 23일) '개념 기반 탐구수업의 기초 이해', 2차(5월 14일) '개념 기반 탐구수업의 전략 적용의 실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차수별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약 40여명의 교원들이 교실에서 실제 활용해볼 수 있는 전략들을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장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개념 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생 중심의 활동 운영과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수는 장수초 개념기반 선도학교, 수업혁신지원단(장수분과)과 연계해 운영되었으며, 교실 수업 혁신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 숲속 하나 어린이집, 무주군에 성금 기탁

'전주 숲속 하나 어린이집'에서 1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유선 전주 숲속 하나 어린이집 원장은 "무주군 산물 피해 주민들과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오늘 전달된 성금은 지난 어버이날에 자연·생태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했던 플러마켓 운영 수익금"이라고 밝혔다.

전주 숲속 하나 어린이집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소재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18명의 교사가 0세~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돌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나의 색, 청렴의 빛 찾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청렴의식을 고양하는 '나의 색, 청렴의 빛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외부 퍼스널 컬러 전문 강사를 초청, 퍼스널 컬러의 개념과 자기 인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원 각자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청렴 다짐 활동을 펼쳤다.

이에 직원들은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청렴 슬로건을 작성하고, 청렴 다짐카드를 만들어 '청렴나무' 보드에 게시함으로써 서로의 색을 존중하며 하나의 청렴한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완성 원장은 "직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색으로 청렴의 가치를 표현하는 이번 활동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성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지역고교생 취업역량강화 진행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지역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한방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한방!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소개 및 자기표현 연습, 모의면접 등 면접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이 이뤄졌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면접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 13일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첫걸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교육에서는 직장생활을 위한 직장예절,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한 마인드셋, 이미지메이킹,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실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태도와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규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한방고 학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분야로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감사업무 교류·지원 손 맞잡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협의회 10주년 맞이 업무협약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협의회(전감회·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 허정환)는 14일 전북 정읍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상호 감사업무의 지원과 교류를 목표로 출범한 전감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감회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 소속 감사기구로 구성된 단체다.

업무협약에는 전감회 소속 기관 간 △감사 전문인력



상호지원 및 교차감사 지원 △감사기법·내부 통제 우수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유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 상호 협력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감사회로 인하여 업무차리를 기피하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변혁제도'와 사례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산하 전기안전인재개발원과 전기재해연구센터 등의 시설을 견학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허정환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감회 소속 기관 간 감사분야의 실질적 교류로 업무역량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김학경 남원병원장, 춘향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남원병원 김학경 원장이 14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지원을 위한 뜻을 담아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춘향장학재단은 남원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경 원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한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춘향장학재단 이사장)은 "김학경 원장님의 따뜻한 나눔은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된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상의 골프동호회,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동 전개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는 사랑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4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꽃밭장이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호회가 매 정기 라운딩마다 적절해온 '사랑의 버디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라운딩에서 버디 1개당 선수, 동호회, 동호회장이 각 1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현재까지 총 216만 원이 적립됐으며, 그 의미 있는 첫 사용처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동호회원들은 자원봉사로 직접 참여해 배식과 식사 보조 등 급식 활동을 도우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사랑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는 덕진구에 위치한 덕진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완산구 꽃밭장이노인복지관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최하연 농가주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만금전력과 직원들이 직접 도와주신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대복 새만금전력파장은 "이번 파종 작업 일손돕기가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새만금전력과, 영농철 맞이 농촌 일손돕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전력과(파장 이대복)가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청하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모판 벌치 파종 작업을 지원하는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만금전력파장을 포함한 직원 8명이 참여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벌치 파종 등 모판만들기를 실시했다. 모판만들기는 벼농사의 시작으로, 적기에 마무리해야 안정적인 벼 생육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청하면 농가주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만금전력과 직원들이 직접 도와주신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대복 새만금전력파장은 "이번 파종 작업 일손돕기가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며, "앞으로도 전주상의 골프동호회가 기업인의 건강한 교류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진행

남원시의회의(의장 김영태)가 지난 4월 7일 남원시 주생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 교실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청소년 의회 교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의회 시설 견학 △분회와 및 위원회 체험 △의원과의 대화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실은 2025년에는 총 8개 학교에서 141명의 학생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덕과초등학생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사회복지사협회, 5개 관계기관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중)는 지난 13일 전북사회복지화관에서 전북복지지사를 선도할 사회복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복지 분야 핵심인력 1천명 확보를 목표로, 지난 1월 선정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사랑의열매 전북아카데미'를 본격 이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사이다.

5개 관계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사회복지현장 전문성을 갖춘 핵심 실무인재 양성, △도내 대학 사회복지전공생 성장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박주중 회장과 박희수(노인복지관협회)·이명재(장애인복지관협회)·노영웅(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및 박종국(더불어불협동조합) 이 사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박주중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전북 사회복지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 등 환경 변화를 주도할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협회와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을 한데 모아 사회복지 핵심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전북아카데미'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수습한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1차년도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전북지역 5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인재 및 미래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차년도는 거주시설, 3차년도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동동, 취약계층 10가구에 서랍장 전달

남원시 동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최근 1월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 10가구에 서랍장을 직접 전달하는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번 서랍장 전달은 지난 3월 13일 쓰임 사회적협동조합(대표 변수봉)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작 인건비는 재능기부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재료비만을 지원해 1월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사용이 불편한 가구를 이용하고 있거나 없는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다.

지원받은 주민은 "타 지역에서 이사하면서 가구를 마련하지 못해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랍장까지 마련해 주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선자 동동동장은 "앞으로도 가족을 행하는 마음으로 관내 취약계층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두루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봉 상추 영농조합법인, 남원시에 상추 1200상자 기부

남원시는 지난 5월 13일 지리산 운봉 상추 영농조합법인(대표 성상호)에서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상추(5kg) 1,200상자(환가액 8천 4백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나눔을 다짐했고, 이후 4년간 환가액 5억 8천여만 원의 기부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는 샐러드 상추 재배법이나 조리법 등을 교육하는 재능 기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상호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농가의 정성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상추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김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3-620-6333)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